

〔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 : 2011 전략과제 제5차 워크숍

2011.05.16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1. 5. 16(월) 14:00-16: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 발표자 : 양도식 박사(영국도시연구소 Urban Plasma)
- 참석자 : 내부 연구진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5:00	60'	· 인간중심의 도시만들기 - Jane Jacobs의 외침의 공간적 투영	양도식 박사 (영국도시연구소 Urban Plasma)
15:00	16:00	60'	· 종합토론	

인간중심의 도시만들기

- Jane Jacobs의 외침의 공간적 투영

- 양도식 박사(영국도시연구소 Urban Plasma)

인간중심의 도시만들기: 'Jane Jacobs' 외침의 공간적 투영

양 도 식

발표 내용

1. Jane Jacobs의 비판
2. 사람중심 도시만들기의 양상
3. 결론: 인간중심의 도시만들기란

반인간중심의 모던 도시의 비판

Jane Jacobs(1961)의
[The Death and Life of American Cities]

Jonathan Raban(1974)의
[Soft Cities]

Italo Calvino(1972)
[Invisible Cities]



Garzanti

I could tell you how many steps make up the streets rising like stairways, and the degree of the arcades' curve, and what kind of zinc scales cover the roofs: but I already know this would be the same as telling you nothing. The city does not consist of this, but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measurements of its space and the events of its past: the height of a lamppost and the distance from the ground of a hanged usurper's swaying feet [...] As this wave of memories flows in, the city soaks it up like a sponge and expands (Calvino, 197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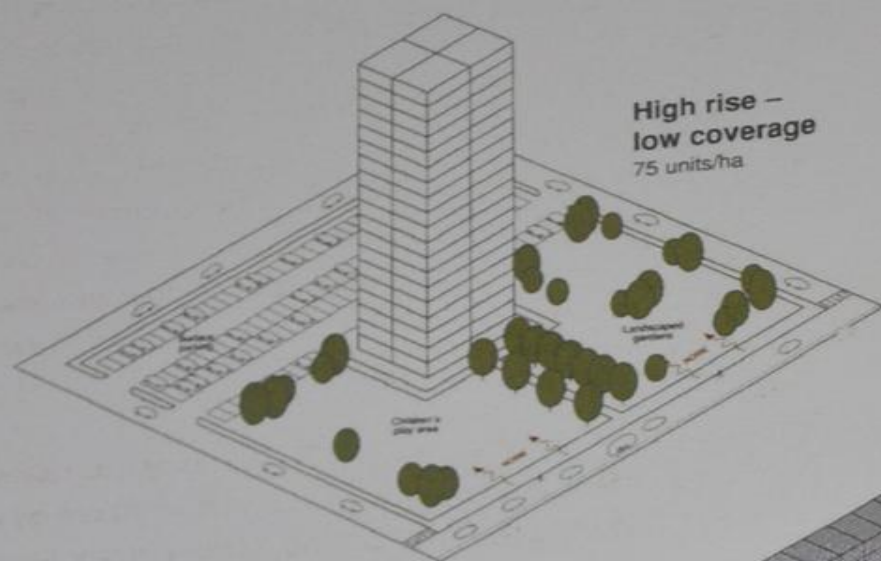
From beginning to end, from Howard and Burnham to the latest amendment on urban-renewal law, the entire concoction is irrelevant to the workings of cities. **Unstudied, unrespected cities have served as sacrificial victims** (Jacobs, 1961: 35)



The city goes soft: it awaits the imprint of an identity. For better or worse, it invites you to remake it, to consolidate it into a shape you can live in. You, too. Decide who you are, and the city will again assume a fixed form around you. Decide what it is, and your own identity will be revealed (Raban quoted in Dear, 2000: 141).






모던 도시와 삶에 대한 비판

- 기능적 도시와 공간구조
- 이용자를 배제한 공간계획과 도시 만들기
-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
-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
- 도시의 획일성/커뮤니티의 정체성약화
- 물질화된 도시의 삶 인간상실/존재론적 회의
- 조닝중심의 도시구조
-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와 정책의 필요성 역설**



Key

Target a mix of activities
Include a variety of house types

-  Community facilities
-  Shops and workspaces
-  Maisonettes
-  Houses
-  Apartments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의 구체화

‘Tranditional Neighbourhood Development’
(TND)

‘New Urbanism’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Urban Village’

‘Compact City’

‘Smart Growth’

‘Reg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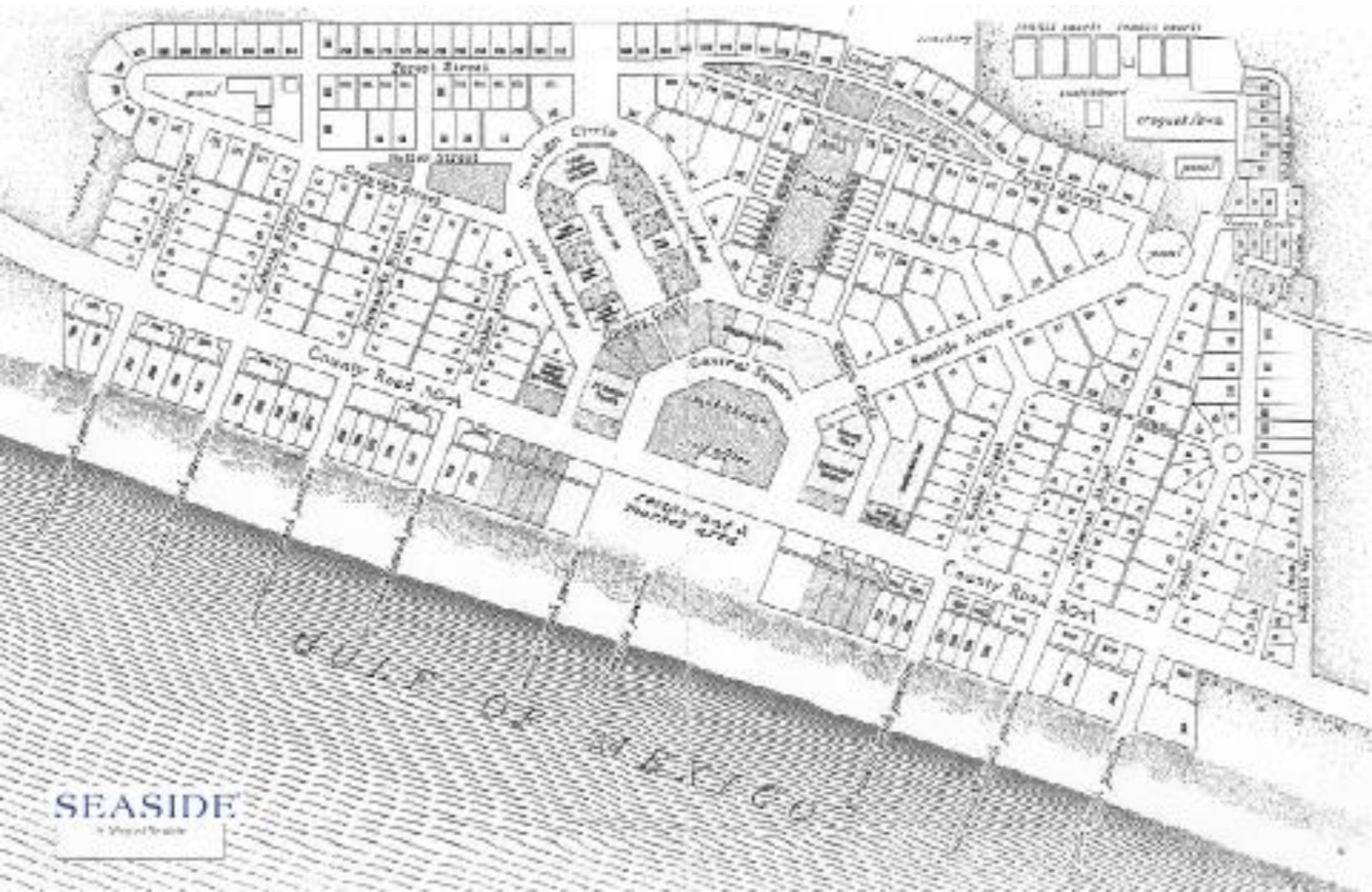
New Urbanism & Urban Village 개념

- 위치: 기존의 개발된 지역(brownfield)이나 녹지에
 - 고밀도
 - 복합용도
 - 다양한 거주민
 - 양질의 디자인
 - 보행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
- 인구: 3,000-5,000명
- 규모: 900 미터직경(10분 보행거리)
- 시설: 다양한 생활시설과 오픈스페이스
- 계획된 마스트플랜과 디자인 코드에 따라 계획
- 비슷한 규모의 커뮤니티가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교통

New Urbanism & Urban Village 개념

- 위치: 기존의 개발된 지역(brownfield)이나 녹지에
 - 고밀도
 - 복합용도
 - 다양한 거주민
 - 양질의 디자인
 - 보행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
- 인구: 3,000-5,000명
- 규모: 900미터직경(10분 보행거리)
- 시설: 다양한 생활시설과 오픈스페이스
- 계획된 마스트플랜과 디자인 코드에 따라 계획
- 비슷한 규모의 커뮤니티가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교통

The Seaside (플로리다)





Greenwich Millennium Village(런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주요 내용

- 복합용도
- 1:1 ratio between jobs and residents
- 규모 40 hectare – say 600m by 600m
- 10 minutes walk
- 인구 3,000 – 5,000 – 다양한 활동을 유발시킬 정도로 충분한 규모
- 서로간 커뮤니티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 보행
-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 도시구조

건축물과 거주형태

다양한 타입과 규모의 건물

타운센터로 갈수록 높은 밀도를 유지/다용도 건물

주택: 다양한 규모와 타입의 주택과 아파트, 양육원, 직주의 연계성,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주택/상업 거주형태 장려

.

주요 물리적/사회적 시설

- 일상적 쇼핑시설
- 기초 보건과 건강시설
- 초등학교
- 레크리에이션과 문화시설
- 고용
- 녹지공간, 특히 커뮤니티 주거공간 주변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공공간과 커뮤니티공간
- 커뮤니티 곳곳에 공공공간의 배치
- 정체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건축디자인
- 작은 규모의 길과 골목길이 소규모 블럭크기와 연계
- 주요 가로구조와 보행로가 공공공간과 연계

주요 타운센터와의 관계

- 보행으로 연계
- 랜드마크 건물을 통한 장소성 창출
- 교통시설의 효율적 배치: 커뮤니티의 가장자리 배치를 통한 공유
- 중소대 규모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3. 결론: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

Zoning Plan < Spatial Plan

커뮤니티중심 도시만들기/도시재생

근린주구(neighbourhood) < 커뮤니티(communitiy)

Le Corbusier (machine for living). Jane Jacobs (the life and death of Great American cities)

Modernism vs. Post-modernism

Zoning vs. Spatial Plan

Renewal/Redevelopment vs. Regeneration/Renaissance

Margaret Thatcher vs. Tony Blair



감사합니다